

미소금융 1년만에 1000억 '제도안착'

광주·전남 6곳서 45억5천만원...지점 늘면서 지원액 증가세

시행초기 저조한 대출실적으로 논란에 시달렸던 서민금융 소액신용대출상품인 미소금융이 출시 1년 만에 지원액이 1000억원을 돌파하며 서민들의 자활 지원 프로그램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광주·전남지역은 대출실적이 520명에 45억5100만원으로 아직은 저조한 편이지만 미소금융 지점이 늘면서 지원액이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이다.

이달 15일까지 광주지역은 ▲우리미소금융 광주지점 220명, 16억원 ▲미소금융중앙재단 광주 서구지점 59명, 5억7500만원 ▲KB미소금융 호남지점 50명, 4억3600만원 ▲현대차 미소금융 광주지점 64명, 6억

4000만원을 기록했다. 전남은 ▲포스코 미소금융 광양지점 64명, 6억1000만원 ▲삼성미소금융 전남 서부지점 63명, 6억9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역 내 미소금융 지점 한 관계자는 "지역의 경우 지점 수도 적은데다 홍보부족 등으로 초기에는 대출실적이 많이 저조한 편이었지만, 출장상담 등 현장 영업도 강화하고 수혜자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퍼지면서 대출실적이 조금씩 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전국의 경우 미소금융의 혜택을 받은 사람은 모두 2만1223명이었으며 지원금액은 1019억원을 기록했다.

유형별로 미소금융 지점의 대출이 6803명, 681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전국의 복지사업자를 통한 대출이 6062명, 297억원이었고, 저소득층 가구 아동 및 장애인복지시설의 보합가입을 지원하는 소액보험사업이 8358명, 41억원이었다.

미소금융 지점도 이날 서울 노원지점 설립을 계기로 지점수 100개를 달성했다. 작년 12월15일 수원에 삼성미소금융재단의 1호 지점을 시작으로 1년 만에 100곳으로 늘었다.

지점은 수도권 45곳, 지방 55곳이며, 유형별로 기업계 출연금을 통해 설립된 지점이 49곳, 은행계가 31곳, 미소금융중앙재단의 지역지점이 20곳이다.

▲미소금융=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저소득층에 담보없이 짝 이자로 사업자금을 빌려주는 사업이다. 대출 수혜자가 되려면 전 재산이 8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전 재산 중 부채비율은 50% 이하, 개인회생 중이거나 파산 면책을 받았더라도 최소 5년이 지나야 하는 등 대출조건이 까다로운 편이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미소금융 1주년 기념행사를 갖고 미소금융 유공자로 대통령 표창 5명, 국무총리 표창 5명, 금융위원장 표창 10명 등 35명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은미기자 emlee@연합뉴스



핫팬티 입고 따뜻하게..

16일 광주신세계 백화점 4층 속 옷매장에서 올 겨울 여성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핫팬티를 선보이고 있다. 핫팬티는 신축성과 보온성이 뛰어난 니트소재로 된 제품으로 추운 겨울에도 치미를 즐겨입는 여성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광주신세계 백화점 제공〉

소셜커머스 '티켓몽키' 운영 웨이커스

구매금액 1% 광주 소외계층에 기부

광주지역 소셜커머스(공동구매 소광물) '티켓몽키(www.t-mong.co.kr)'를 운영하는 (주)웨이커스(대표 이동철)가 구매금액의 1%를 광주지역 소외계층에 기부하는 행사를 진행한다.

소셜커머스는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트위터 등 SNS(Social Network Service)과 온라인 미디어를 통해 소비활동을 하는

신개념 소광물을 말한다.

'티켓몽키'는 광주·전남 지역과 관련된 생활·문화 상품들을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는 공동구매형 소셜커머스로, 광주시립미술관 상록전시관에서 전시 중인 '팝 아트 슈퍼스타-키스헤링'전 티켓을 50% 할인된 가격에 판매(150매 한정)하고 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롯데마트 이번엔 20만원대 '통큰 넷북'

5000원짜리 '통큰치킨'을 출시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롯데마트가 통큰 시리즈 2탄 제품으로 29만원대 저가 넷북을 내놓아 대박을 터뜨렸다.

롯데마트는 16일 가전회사 모뉴엘과 함께 10.2인치 화면과 인텔 아톰 D310프로세서, 1GB 메모리 등을 장착한 넷북 'N01D' 1천대를 기획상품으로 출시해 대당 29만8000원에 판매했다.

이는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다른 업체의 넷북 가격이 30만~40만원대 후반인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저렴한 가격이다.

롯데마트는 이 제품을 따로 홍보하지 않았지만 출시 소식을 접한 일부 누리꾼들이 '통큰치킨'을 연상시키는 '통큰넷북'이라는 별명을 붙여주고 화제를 만들어냈다.

이 영향으로 '통큰넷북'은 16일 오전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 1, 2위에 오르기도 했고, 결국 접점 개장 4~5시간 만에 준비된 물량 1000대가 모두 팔려나갔다.

롯데마트는 예상 밖의 인기로 놀라면서 추가 물량을 내년 2월 초 확보해 공급하기로 하고 예약 주문을 받기로 했다.

/연합뉴스

삼성테스코 PB 건어물에 대장군

〈자사브랜드〉

'참조미오징어·조미튀치포' 회수

삼성테스코의 자사브랜드(PB) 제품인 참조미튀치포와 오징어에서 대장균이 검출돼 회수조치가 내려졌다.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삼성테스코가 ㈜세민수산과 선홍수산식품에 위탁생산한 자사브랜드(PB)제품인 '참조미오징어'와 '조미튀치포'에서 나와서는 안되는 대장균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이에 따라 해당제품의 유

통과 판매를 금지하고 회수조치했다고 말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오는 2011년 3월12일까지인 참조미오징어 1080개(개당 160g)와 유통기한이 2011년 5월27일까지인 참조미튀치포 1307개(개당 180g)이다.

식약청은 해당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삼성테스코로부터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광주·전남 금융기관

수신 ↓ 여신 ↑

10월 중 광주·전남 지역 금융기관의 수신은 줄고 여신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발표에 따르면 '2010년 10월 중 광주·전남지역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에 따르면 수신은 예금은행을 중심으로 전달의 증가(+5457억원)에서 감소(-104억원)로 전환했다.

예금은행의 수신은 기업의 월말 부가가치세 납부 등으로 감소로 전환(+1600억원→-2848억원)했고 비은행금융기관은 초단기 금융상품인 MMF(Money Market Fund) 및 주식형 펀드 판매가 늘어나 증가폭이 축소(+3857억원→+2744억원)됐다.

또 금융기관의 여신은 예금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 모두 증가하면서 증가폭이 크게 확대(+1250억원→+6995억원)됐다.

예금은행은 미곡종합처리장(RPC)의 원료곡 매입 자금 수요와 부가가치세 납부자금 수요 등으로 중소기업 대출이 늘어나면서 전달(-863억원)로 전환했다.

비은행금융기관의 여신은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폭이 확대(+2113억원→+2805억원)됐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올 증시 30일 폐장...29일 배당락일

올해 증권시장이 오는 30일 폐장한다.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과 코스닥, 파생상품 시장이 오는 30일 폐장

하고 31일에는 휴장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12월 결산법인의 배당락일은 29일이 되며, 12월 결산법

인의 배당을 받으려면 28일까지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

새해 첫 거래일인 2011년 1월 3일에는 평소보다 1시간 늦은 오전 10시 정규시장이 개장한다. 정규장 마감은 종전처럼 오후 3시로 동일하다. /연합뉴스